

2024년도 제3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베네수엘라의  
거리 풍경:  
곳곳에서 보이는  
성모님 사랑

Bendita  
sea, pues  
graciosa be  
Virgen Sagr  
dia, alma vi  
compasión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모님의 중재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널리 알려진 기적도 많지만, 해당 지역에만 알려진 기적들도 있습니다.

2013년, 태풍 올란다가 필리핀 동부 해안을 강타했을 때 일어난 기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태풍으로 최소 8,000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지요. 팔로대교구는 가장 심각한 재난 피해를 본 교구에 속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거센 폭풍 속에서 수많은 어린이를 구해낸 현자인 옷차림의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태풍 속에서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구해낸 분이 성모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팔로의 존 두 대주교는 생존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각상

을 만들어 ‘희망의 성모님’으로 봉헌했습니다. 그 때부터 이 동상은 엄청난 폭풍 피해 이후 삶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대교구 신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혹한 태풍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3년 11월 8일, 존 두 대주교는 이날을 ‘희망의 성모님’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성모님에게는 많은 칭호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는 어쩌면 ‘희망의 성모님’이 가장 큰 위로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많은 고통이  
가정 안에서 치유되고,  
해소됩니다.”



베차라 부트로스 라이  
총대주교(가운데)의 가정  
상담센터 개관식



다시 행복해진  
이브라힘 가족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중재자



단결된 가정은  
강합니다

## 레바논의 가정 사목 :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제로서 수년간 본당 주임과 대신학교 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혼인과 가정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 인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신앙으로 가득한 온전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지요. 기본적인 성품과 능력, 우리의 자아상, 하느님과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미덕이 가정 안에서 마련되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문화에서든 ‘혼인과 가정은 인간에게 하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 1항)

한편으로는 혼인 실패와 가정 해체로 인한 결과들을 종종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폭력, 강압, 과도한 요구, 괴로움, 때로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짓누르는 자녀 걱정, 이혼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고통... 사목 활동 중에 이런 고민을 수없이 접했습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을 목격한 루치아 수녀는 카를로 카파라 추기경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마지막 전투는 혼인과 가정을 두고 벌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인과 가정의 신성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반대와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이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투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사회 질서를 와해시키는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든, 또는 자녀를 비용 상승 요인과 부담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통해서든, 또는 배우자와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심각한 트라우마와 황폐화를 불러오는 전쟁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교회 내에 혼인과 가정을 수호하고, 관련 교의를 온전히 선포하며, 혼인성사에 담긴 은총을 입증할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리 교육, 성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어떻게 혼인과 가정을 강화하고 또 때로는 구원하는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하는지 자주 경험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가정 안에서 치유되고 해소되는지 ACN을 통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고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회제도라는 사실도 말이지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부부의 신의와 수고에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부부와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 OP*



레바논의 주크 무스베에 있는 가톨릭 가정 상담센터에는 절망에 빠진 부부와 가정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애정 어린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 종종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 딸을 좀 도와주세요!” 24세 라마(가명)의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5년 넘도록 자신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라마는 이미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면서도, 그 남성과의 결혼을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서야 라마는 마음을 열었지요. 센터 상담사인 리타 엘 코리의 보고입니다. “5개월 동안 우리는 라마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는지, 하느님 눈에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말해주었어요. 결국 남성을 떠난 라마는 식사과정에 지원해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별거 중인 부모의 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7세 소년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소년은 어머니에게 적대적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서로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

보이면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지요. 가정 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은 부모와 면담하면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

고 있으며, 이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아있을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이 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며 사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가정의 토니 이브라힘은 불륜으로 계속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아내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삶을 변화시킨 이브라힘이 고백합니다. “제 안에 머물면서 제 삶을 파괴한 사악한 영을 가까스로 내쫓았어요. 긴 고해를 하고 나서, 하느님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가정을 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은 탕자를 받아들이시듯 저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미사에 충실한 새로운 신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는 사이, 넷째 아이가 생기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행복하고 단합된 가정을 단단히 지켜갈 수 있게 되었지요.”

긴장 상황 속에서 레바논에서는 절망을 느끼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위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크 무스베에 가정 상담센터에 105,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한때 범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브라질이 그 예입니다.**

브라질 교도소에는 약 백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과 중독, 범죄의 악순환에 빠져 폭력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요.

5,000여 명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수감자들을 방문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기가 때로는 아주 힘들지요.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숨김없이 고

백할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감자들이 올바른 삶을 시작하려면 '영적인 약'인 성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회개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사랑 역시 이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주교들이 교정 사목을 위해 기도서 12,000권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22,000,000원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면 삶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수감자들과 같은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회개할 힘을 주는 하느님의 축복



감옥에서 접하는 그리스도



감방을 지나는 성체 행렬

## 제나로와 성모님

데이비드 오코너 신부는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인 **페루 우안카네 성직 자치구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깊습니다. 이들에게 복되신 성모님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지요.” 아일랜드 출신의 오코너 신부의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남미에서는 사이비 종파도 아주 활발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때로 사람들이 거짓된 치유와 구원 약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라디오에서 한 설교자가 자신의 종파에 가입하는 모든 이에게 치유를 약속하자, 85세의 제나로는 진지하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제나로는 매주 가톨릭교회를 다녔지만, 시력을 점점 잃어갈 위기에 처하자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사제가 오랫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처음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신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나로, 그 사람들은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제나로는 즉각 대답했지요. “그렇지요. 그럼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안데스산맥의 제나로처럼 가난한 이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돕는 오코너 신부와 그 밖의 사제들도 생필품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 사제들을 위해 미사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까? 🙏**



신자들을 강복하는 데이비드 오코너 신부



진심 어린 기도: 그리스도와 성모님에 대한 큰 사랑



베네수엘라에는 희망을 주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바르키시메토에 있는 '거룩한 목자' 성화

## “복되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바르키시메토에 있는 '거룩한 목자' 성화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교화에 속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곳의 성모 행렬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성모님을 기리기 위해 모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총을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거룩한 목자'의 은혜를 입은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ACN은 중남미 국가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미래의 사제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제 성소의 길에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르키시메토 출신의 젊은 신학생 앤더슨의 말입니다. “‘거룩한 목자’는 저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해 주시는 좋은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성모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성모님께 대한 제 신심은 청소년 시기에 시작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목자’를 기리는 행렬에 참석했는데, 그때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성모님께 청원 기도를 바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모님을 통해 제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도 느꼈고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다른 신학생인 그레이벨이 말합니다. “성모님은 제 인생의 첫 순간부터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제 스승이자 친구이신 성모님은 어릴 때부터 제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지요.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이듯, 제게는 성모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젊은 예수스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축구를 하는 신학생 호세



새로운 성소를 홍보하는 신학생들

항상 제 곁에 계시면서 저를 이끌어주고 동행해주신 분이 성모님이었습니다.”

사제직을 준비하는 이 젊은이들은 기쁨과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라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베네수엘라는 수년째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구의 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살률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고, 범죄율도 높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며 이 나라를 떠납니다.

그러나 바르키시메토에 있는 56명의 신학생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전역의 많은 청년이 이 나라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신학생들은 '거룩한 목자'의 이끄심을 받아, 절망에 빠진 국민을 위해 '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신학생 양성에 연간 약 1,200,000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 전 세계적인 성모님 공경

## 성모님을 위한 선물



파나마 청소년들의 성모 행렬

전 세계 신자들이 날마다 성모님께로 향합니다. 그리스도교 시문학에서 가장 숭고한 찬미가가 성모님께 바쳐집니다. 동방 교회에서는 성모님을 ‘가장 찬양을 받으시며, 케루빔보다 더 영예로우시고 세라핌보다 더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기립니다. 또한 성모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 피신해오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십니다.

‘아베 마리아’ - 외떨어진 작은 정글 마을에서,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대도시의 판자촌 빈민가에서, 난민 수용소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곳을 피해 머문 쉼터에서, 젓먹이의 요람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도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찾는 순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울려 퍼집니다.

1531년,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진 **중남미** 대륙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 덕분에 종종 가톨릭 신자들이 사이비 종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르완다**의 키베호에서는 1994년의 집단 학살 이후, 깊이 상처 입은 사람들 수천 명이 친척과 친구들을 살해한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얻었습니다. 1980년대에 성모님은 ‘말씀의 어머니’로 이곳에 발현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 성모 발현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곳으로 순례객들이 옵니다. ACN은 순례지 건설을 처음부터 지원했습니다.

‘Salam-a-Mariam’ - ‘아베 마리아’는 파키스탄 신자들이 열렬히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성모 성지인 메리아마바드를 여러 번 지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합니다. 판사라의 본당 주임인 임마누엘 파베즈 신부가 보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근심을 안고 성모님께 옵니다. 그중에는 무슬림도 있지요.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어린 자녀를 성모님의 발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돌보셨듯이 제 아이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는 신자들이 기도 행렬 행사를 열고, 베르디치프와 사르바니차 성지와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서 평화의 선물을 중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중동 지역**에서도 성모님께 바치는 탄원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ACN은 신자들이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 사랑과 공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성모님께 봉헌된 교회, 수도원, 순례지의 건축과 유지뿐만 아니라 또한 묵주기도 캠페인이나 성모 공경 서적의 보급이 포함됩니다.

**5월 성모성월에 사랑하는 성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겠습니까?** ②



남수단 어린이들도 바치는 ‘아베 마리아’



베네수엘라의 라과이라: 루르드 성모님을 기리는 행렬



시리아: 성모님께 평화를 청하는 사람들



에페소의 테오토코스 바실리카 유적지에서 안톤 레서 신부(앞쪽 중앙)



에페소에서 이즈미르의 마르틴 크메텍 대주교와 함께 거행한 미사



이스탄불의 이라크 신자들



지진으로 파괴된 이스켄데룬 대성당

## 튀르키예 “그곳에 제 마음 일부를 두고 왔습니다”

ACN의 안톤 레서 지도신부가 튀르키예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했습니다.

### ②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튀르키예의 많은 지역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람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중심지가 형성되었지요. 성 바오로 사도의 여행이 대부분 튀르키예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바오로 서간도 이곳 주민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묵시록에 언급된 일곱 교회도 이곳에 있지요. 그리스도 신앙을 근본적으로 정리한 초기 공의회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에페소에 있는 성모마리아의 집과 ‘테오토코스’ 바실리카 유적지에서 이즈미르(스미르나) 대주교와 함께 거행했던 미사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특별히 성모님의 신비를 마주한 만남이었죠. 이런 장소로의 순례를 부흥시키면 전 세계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에 심각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문한 이스켄데룬과 안타키아(안티오키아)의 피해는 상상도 못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 6만 명, 부상자 12만5천 명이 발생했지요. 튀르키예에서만 건물 23만 채가 붕괴

하거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56만 명이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타키아에서는 주택의 80%가 파괴되었지요. 우리는 구시가지에서 잔해더미를 넘어 가며 온전하게 남은 작은 가톨릭 성당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장면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켄데룬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목격했습니다. 주교좌 성당은 완전히 파괴된 탓에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낀 우리는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지요.

### ② 튀르키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이스탄불의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발생한 공격에서 드러났듯이, 잠재적으로 목숨에 대한 위험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믿음, 용기, 지혜, 인내, 신의의 단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 제게는 마치 성모님의 초대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위해 불사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려면 다양한 물질적, 도덕적, 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건대, ‘그곳에 제 마음 일부를 두고 왔습니다.’ ②





난민 신분인 프란시스코 신부와 요셉 신부



여성의 가치가 소로 매겨집니다



테레케카에서 사제와 신자들과 함께 자리한 키파 폰 쉬어스태트

## 남수단 천국을 위해 태어난 아기 제롬

ACN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담당자인 키파 폰 쉬어스태트가 최근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 남수단의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남수단은 부족 갈등으로 갈라진 몹시 가난한 나라입니다. 내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평화는 취약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어디선가 광 소리만 들려도 곧 도주할 태세를 취하지요. 가톨릭교회가 평화를 가져오기에 가장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부족에 속하지 않으며, 단일한 보편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주민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동안 피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진정한 가정생활도 꾸리지 못했어요.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수단에서 가장 큰 부족은 딩카로,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일부다처제로 살아갑니다. 여성의 가치는 소로 매겨지는데, 한 집안이 아들의 신분을 감을 위한 대가로 요구되는 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집안의 딸을 팔아 소와 바꾸기도 하지요.

우리가 여행 중에 목격했듯이 이런 문화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할아버지꼴인 남성과 결혼한 아주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임신 중이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음식을

거부했지요. 그 여성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기는 여성 수도자들에게 인계되었어요. 아기는 제롬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요. 그 아기는 세례받은 지 두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는 온갖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애씁니다. 예를 들어 말라칼의 끔찍한 난민 캠프에서는 2016년부터 수많은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한 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캠프 입구에 적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울컥하고 말았지요. 이곳에 어떤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이곳에 주교님은 사제를 파견하고 싶어 합니다.

### 남수단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제와 수도자들은 참된 목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을 지킵니다. 이들의 소명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여 이 나라가 겪은 심각한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오랜 위기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또한, 가정 사목을 장려하고, 미래 사제 양성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변화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 후원자를 기립니다!

2024년 6월 7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로, 해마다 이 축일이면 ACN에서 후원자들을 기립니다. 후원자들의 관대한 마음이 늘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97세 마리아 안토니아 카브랄은 ACN의 열심한 후원자 중 한 분입니다. 이분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아름답게 장식한 전통적인 포르투갈 성인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은 ACN에 기부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상상력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모두 보답해 주시기를!**



## 한국기부 소식 TV 매일미사

미사 시간 **6월 7일 금요일**  
06시, 09시, 12시, 18시  
지부장 박기식 사도요한 신부 주례

2024년 6월 7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미사 때, ACN 후원자의 날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시청을 통해 미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